

## 여(余)는 예술지상주의자(藝術至上主義者) —남도 그렇게 부르고 나도 자처(自處)한다

나는 예술지상주의자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거니와 나도 또한 그렇게 자처한다. 그러나 내가 자처하는 예술지상주의자와 나와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의 조소(嘲笑)하려는 의도로 나를 규정하는 그 예술지상주의자와는 미안한 일이나 호적이 좀 다르다.

그들의 눈에 비친 김환태는 문학을 인생의 유일최고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사람이요 따라서 문학과 인생과의 관계를 단절하여 버리려는 사람이며, 문예작품 속에서 그 내용을 완전히 거세하여 버리려는 형식지상주의자인 모양이다. 나를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자기도취적 만족을 얻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를 규정함으로써 나의 두상에 일격을 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왜?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술지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예술지상주의자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규정하는 그런 예술지상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문학을 정치에 예속시킴으로써, 그곳에서 인생과 문학과의 관계를 맺게 하려는 그런 정치지상주의자도, 한 작품 속에 담긴 사상을

곧 문학으로 아는 그런 내용지상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술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여, 인생에 대한 사랑과 예술에 대한 사랑을 융합시키고 생활과 실행의 정열을 문학과 결합시키려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문학의 인생에의 효용을 문학의 선동성, 계몽성에서가 아니라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속에서 찾는다. 이런 태도를 소위 인생파(人生派)들은 문학의 인생에의 효용을 거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모양이나 이것이야말로 문학의 효용을 최대한으로 확충시키려는 진정한 인생파의 태도다. 선동이나 계몽의 힘에 있어서 문학은 도저히 연설이나 선전문을 따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설이나 선전문을 버리고 시나 소설을 선동이나 계몽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그 사람이야말로 다시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나 소설은 연설이나 선전문 pamphlet이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를 기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힘에 있어서 탄 무엇보다도 강렬하다.

한 떨기 꽃에서 얻은 기쁨과 한 조각 선전 뼈라에서 받은 흥분을 비교하여 보라. 그 강렬의 도에 있어서 꽃에서 얻는 기쁨은 선전 뼈라에서 받은 흥분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속성에 있어서 후자는 전자를 따르지 못한다. 그리고 한 떨기 꽃에서 받은 기쁨과 한 문예 작품에서 얻은 기쁨과는 그 종류에 있어서 진폭에 있어서 그리고 심도에 있어서 도저히 비교를 허락지 않는다. 그럼으로 문학인생에 기여하는 길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이며 또 그 길을 통하여서만 가장 풍부하게 인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쁨이란 언제나 자기목적적(自己目的的)인 것이다. 그리하여 한 떨기 꽃을 약초로서 볼 때 우리가 그 꽃에서 미를, 따라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바와 같이 한 작품을 그것의 본질을 떠나 선전이나 계몽의

외적 목적에 봉사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큰 기쁨을 찾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학으로 하여금 가장 크게 인생에 기여케 하려면 향수과정(享受過程)에 있어서 문학의 본질을 다시 말하면 문학 그것을 그것으로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물론 창작과정에 있어서도 작가는 그의 예술적 정열을 판 문화영역으로 분산시키는 일이 없이 완전히 문학 그것으로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진정한 예술가는 언제나 예술지상주의자인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작품에서 얻는 기쁨이란 그 형식에서도 내용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요 형식과 내용으로 분리하지 못할 그것들의 완전한 융합으로서의 작품 그것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한 전체로서의 작품 그것에 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술가는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을 작품 속에서 캐내려는 사람은 형식지상주의자도 내용지상주의자도 아닌 작품지상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일보》, 1938. 3. 3)